

인터뷰 장주영 광주 동구청 미디어소통팀장

# “제2 총주맨” SNS·유튜브 활용 동구 알리기 매진



장주영 광주 동구청 미디어소통팀장은 “주민들이 재미있게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행사 정보를 접하고 혜택과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책정원 영상 5일만에 100만회...영상 제작 의뢰 쇄도 보고체계 없이 추진 “혜택·감동 주는 영상 만들 것”

최근 자치단체들이 SNS나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콘텐츠는 질만 좋으면 볼수록 다수의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게 대박이 나 지자체 정책이나 행사를 알리는 수단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장주영 광주 동구 홍보미디어실 미디어소통팀장(46)도 SNS·유튜브를 활용해 동구를 홍보하고 있다.

장 팀장은 현재 광주 동구 정책에 관한 SNS 영상 촬영·편집·관리, 두드림(새 소식), 홈페이지 관리, 또 각종 통계조사, 통계 연보 발간을 맡고 있다.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충북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충주’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콘텐츠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충주맨’처럼 자신도 ‘제2의 충주맨’이나, ‘제1의 광주맨’을 꿈꾸고 있다.

2008년 7급 일반행정 공채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디딘 그는 2023년 1월 홍보실 미디어소통팀장을 맡게 됐다.

그동안 일선 주민센터 근무, 청년창업 및 일

자리 매칭 등을 돕는 청년 업무를 맡으며 주민 자치센터와 구정 전반에 걸친 일반 행정 업무를 두루 접한 평범한 행정공무원이었다.

그런 그가 홍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은 6급으로 승진한 뒤인 2020년 ‘푸른 연극마을’ 공연단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부제 ‘죄중우들 늦깎이 옹호씨’의 실에서 직장 내 인권침해, 성불평등, 성희롱, 성추행, 민원인과의 갈등 등을 다룬 이 공연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장 팀장을 직원들에게 알리게 됐고 2023년 홍보실 미디어소통팀장을 맡는 계기가 됐다.

2012년 1년간 공보관실에서 기사 스크랩, 구보 발행, 보도자료, 기자단 관리 등을 맡은 지 10년만에 맡은 홍보 업무는 환경이 크게

변해 있었다.

글 사진 등을 신경써서 그래픽으로 처리된 카드 뉴스가 주었던 예전과 달리 온라인이 활성화 돼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구는 당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를 유지 관리하는 데 집중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영상을 활용한 홍보 방법을 연구했고 마침 2023년 12월 개관한 동구구립 도서관 ‘책정원’ 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해 1월 인스타그램에 처음으로 ‘책정원’쇼츠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의 줄거리는 ‘점심시간에 양식을 사 주겠다’라는 한 직원의 말에 장 팀장이 따라 나섰는데 도착한 곳이 음식이 아닌 ‘마음의 양식’을 쌓는 책정원이다. 이후 책정원 경관과 내부 모습 등을 보여주지만 실망한 장 팀장의 모습은 아쉽고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영상은 ‘광주 동구구립도서관 책정원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끝난다. 이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할 정도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 결과 동구는 주민들이 퇴근 후 저녁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6시까지인 개관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신규 사서 직원을 채용했다.

여기에 탄력이 받은 그는 딱딱하고 어려운 행정 소식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보고 체

계를 없애고 아이디어부터 촬영 방식까지 바로 추진했다. 또 1주일에 최소 1편(1분 이내 영상)을 만들자는 약속을 세웠다. 콘텐츠는 시장, 축제 소개부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 혜택까지 다양했다.

또 지난해 홍보실 미디어소통팀에 영상 전문 직원이 배치되며 영상팀을 꾸리게 됐고 현재는 정책 영상 제작해달라는 각 부서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왕과 사냥 남자’의 장면과 대사를 패러디한 28초 홍보 영상 ‘네 이놈, 과인이 먼저다!’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공개하며 ‘반려나무 나눠주기 캠페인’을 소개했다.

단종 역할을 맡은 장주영 홍보미디어실 미디어소통팀장이 마당을 걷다 갑자기 등장한 호랑이에 놀라 “저러가, 과인이 먼저다!”라고 외치며 나눠주는 나무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뛰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주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구성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장 팀장은 “주민들이 재미있게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행사 정보를 접하고 혜택과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자율적 조직문화 이끄는 ‘혁신보드’ 발대식 성료

광주과학관, 8명 선발...자율 혁신·제도개선 주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혁신보드’는 지난해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연차와 직급을 초월해 구성된 통합 혁신조직이다. 총 8명의 위원으로 선발된 이들은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계 활동,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혁신보드는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주제로 수행했

던 역할을 더욱 확장해 조직 내 뿌리 깊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실행을 바탕으로 한 체감도 높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으로 위촉된 과학교육실 서예영 매니저는 “혁신보드 활동을 통해 일상 업무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관행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바뀌어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정구 관장은 “직원 여러분의 참신한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국립광주과학관

생각이 우리 과학관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혁신보드가 자율적 참여와 실행을 통해 조직의 건강

한 변화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태영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도세마을회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전남도세마을회, 고유가·에너지 위기 대응 운동 지도자 120여명 참여...대기전력 점검 등 절약 홍보

전남도세마을회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순천시 덕연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세마을지도자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실천운동은 ‘생활 속 실천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세마을지도자와 회원이 솔선수범하고, 도민 참여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세마을회는 차량 2부제 및 5부제 운영, 공공차량 운행 최소화 등 이동 절감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냉·난방 제한, 조

명 50% 절감, 엘리베이터 격중 운행, 계단 이용 활성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퇴근 시 전원 차단과 대기전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절약 실천을 체계화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사·군 초거점에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거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산에 힘쓰고 있다.

양재원 전남도세마을회 회장은 “에너지 위기는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5일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6 전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론볼대회’ 배식·안전 봉사에 나섰다. 사진제공=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연금, 전남지사배 장애인 론볼대회 봉사 임직원 20여명 자발적 참여...“지역사회와 상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6 전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론볼대회’ 배식·안전 봉사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 20여명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단은 사회·환경·투명(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동반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원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사학연금 한민규 상임감사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전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론볼대회’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선수 149명을 포함해 운영 요원,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오늘도 안전” 여수시, 산단 안전캠페인 전개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사업장서 안전수칙 안내

여수시는 15일 여수국가산단 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정비 사업장 출근길 현장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여) 기초소재 김성권 생산본부장, 사업장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근로자 출근 시간에 맞춰 캠페인을 시작해 근로자에게 안전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는 매년 대정비 사업장과 주요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대정비 기간 동안 단 건의 중대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임기철 총장 초청 포럼 개최

전남·광주 GIST 역할 진단

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I)이 주최한 제 276회 산학협동포럼이 15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남·광주 통합 시대, 지역 혁신과 성장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 임기철 GIST 총장은 “한 특강에서 GIST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전략 등을 통해 반도체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 구축과 산업경쟁력 및 기술지립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조찬포럼은 지난 2003년 1월 설립 이래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해 오고 있다. 산학 협동을 근간으로 설립된 만큼 산업체 CEO, 대학 교수 등 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경제, 경영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교류의 장을 펼쳐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